랩 위드의 기술사업화 인사이트

2026.11.11 (수) | 오늘의 주제

[AX·GX 산업 대전환 시리즈 ⑦편] 탄소 규제는 어떻게 중소기업에 오는가 _ 원청·수출·금융 세 갈래

1. 오늘의 기술사업화 뉴스

• (공급망 동향) 현대차·기아가 국가기술표준원, 협력회, K-Mobility 브릿지 재단과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설비 교체 중심이던 협력사 지원을 글로벌 환경·탄소 규제 대응, 공급망 탄소관리 체계 표준화, 탄소관리 전문 인력 교육까지 넓히고, 내년 감축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상생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아시아경제, 2026.11.09〉*

• (정책 동향)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10일 올해 새로 시작한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 선정 100개사의 수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출형 제품 개발·사업화(최대 1억원)와 해외 소비재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 사업으로, 중기부는 현장 상담이 실제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 뉴스다·경기남부신문, 2026.11.10〉*

• (투자 동향) 국내 생성형 AI 기업 업스테이지가 진행 중인 시리즈C 2차 투자에서 엔비디아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라고 투자은행 업계를 인용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업스테이지는 지난 4월 시리즈C 1차에서 1,800억원을 유치해 국내 생성형 AI 기업 첫 유니콘에 올랐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11.10 · 머니투데이방송, 2026.04〉*

• (사업화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딥테크 사업화 페스티벌'이 11월 12~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11개 창업·사업화 지원기관이 함께 135개 부스에서 공공연구성과 전시와 기술이전·투자 상담을 운영하고, 첫날에는 딥테크 창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243개 실험실 창업 탐색팀 수료식이 열립니다. 참가는 무료이며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 연합뉴스·헬로티, 2026.11〉*

• (녹색금융 동향) 부산시와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이 기후테크 기업에 15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보의 탄소가치평가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소재 기업이 대상이며, 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은행은 우대금리와 보증료를, 기보는 기술평가료 면제와 우대 보증을 맡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11.08〉*

• (산업 동향)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307곳을 조사한 결과, 화석연료 설비를 전기 설비로 바꾸는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31.9%였고 추진 계획이 없는 기업은 62.9%였습니다. 추진 기업의 가장 큰 부담은 높은 초기 투자비(84.0%)였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력 조달 비용을 줄이는 인센티브(66.1%)를 꼽았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메트로신문, 2026.11.08〉*

※ 첫 뉴스처럼 원청이 협력사의 탄소 대응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협력사에 탄소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일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탄소 규제가 중소기업에 닿는 세 갈래 길을 정리합니다. 내일(11.12)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딥테크 사업화 페스티벌은 기술이전·투자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2. 오늘의 한 조각 _ 탄소 규제는 어떻게 중소기업에 오는가

탄소 규제는 법이 아니라 '거래처의 요청서'로 먼저 옵니다

원청의 공급망 요구, 수출국의 국경 규제, 금융권의 녹색 기준 _ 세 갈래 모두 같은 자료를 묻는다

글 · 조남주 대표이사 | 2026.11.11



▲ 원청의 탄소 자료 요청서를 받아 든 중소 제조기업 담당자가 전력·연료 사용 기록을 정리하는 모습(일러스트) *이미지: AI 생성(FLUX)*

[AX·GX 산업 대전환 시리즈 ⑦편]

④~⑤편에서 AX(AI 전환)를 다룬 데 이어, 오늘부터 시리즈의 3부인 GX(녹색 전환)로 넘어갑니다. 첫 질문은 '탄소 규제는 대기업 이야기 아닌가'입니다. 법이 직접 정한 의무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이 탄소 규제를 처음 만나는 곳은 법 조문이 아니라 거래처의 요청서입니다.

법적 의무는 대기업에, 자료 요구는 중소기업에.

배출권거래제나 기후 공시처럼 법이 정한 의무는 대부분 대기업과 대형 상장사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들이 의무를 지키려면 협력사와 납품업체의 배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거래 관계를 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탄소 규제가 중소기업에 닿는 세 갈래

① 원청(공급망)	② 수출(국경 규제)	③ 금융(녹색 기준)
대기업의 공급망 배출(Scope 3) 협력사 배출량 자료 요청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수입업자를 거쳐 배출량 요구	은행·보증기관의 녹색 평가 감축 계획이 금리·보증에 반영

▲ 탄소 규제가 중소기업에 닿는 세 갈래 _ 원청의 공급망 요구, 수출국의 국경 규제, 금융권의 녹색 기준 *그래픽: 랩 위드*

첫째 갈래, 원청.

대기업이 자기 공장 밖, 곧 원료를 사 오고 부품을 납품받는 공급망 전체에서 생기는 배출을 'Scope 3(스코프 3, 가치사슬 간접 배출)'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의 상당 부분은 협력사의 자료로 채워집니다. 대한상의와 산단공이 수출기업 300곳을 조사했을 때, 90.3%가 고객사 입장에서 협력사에 탄소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뉴스의 현대차·기아 협약도 같은 흐름입니다.

국내 공시 일정은 아직 멀어 보여도 요청은 먼저 옵니다.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은 2028 사업연도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를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Scope 3는 3년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고객사를 둔 대기업은 법정 공시 시점과 관계없이 지금 협력사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시가 의무화되기 전에 협력사 평가표에 탄소 항목이 먼저 들어오는 셈입니다.

둘째 갈래, 수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를 EU로 들여올 때 생산 과정의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사게 하는 제도로, 2026년 1월 확정기간에 들어가 올해 수입분부터 인증서 비용이 붙습니다(인증서 판매와 첫 연간 신고는 2027년에 시작됩니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EU 수입업자에게 있지만, 수입업자는 그 계산에 쓸 실제 배출량 자료를 수출기업에 요구합니다. 자료를 내지 못하면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어 바이어가 거래처를 바꾸는 이유가 됩니다.

대상 품목이 아니어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철강·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일부 하류 제품까지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유럽의회·이사회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확정된 범위와 시행일은 협의 결과를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볼트·부품처럼 금속을 가공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우리 품목이 논의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갈래, 금융.

은행과 보증기관도 대출과 보증을 결정할 때 탄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온실가스 감축 사업 대출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녹색정책금융 규모를 3조원으로 늘렸고, 중소·중견기업은 우대금리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감축 가능성을 평가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운영합니다. 탄소는 이제 불이익만이 아니라 더 싼 돈을 빌릴 근거도 됩니다.

갈래	누가 요구하나	무엇을 묻나	준비하지 않으면
① 원청	국내 대기업·1차 협력사	연간 배출량, 제품 단위 배출량, 감축 계획	협력사 평가 점수 하락, 신규 거래 제한
② 수출	EU 수입업자(바이어)	품목별 실제 배출량과 산정 근거, 검증 결과	불리한 기본값 적용, 바이어 이탈
③ 금융	은행·보증기관	감축 설비 계획과 기대 감축량	녹색금융 우대금리·보증 기회 상실

세 갈래가 묻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가 전기·연료·원료를 얼마나 쓰고, 그래서 탄소를 얼마나 내는가'입니다. 요청서 양식은 거래처마다 달라도 바탕 자료는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 전기·연료 사용량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대응입니다. ⑤편에서 다룬 데이터 정리 원칙이 GX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통상부의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꾸린 컨소시엄에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검증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원청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금융은 ⑨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탄소 규제는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보다 '우리 고객과 은행이 무엇을 묻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⑧편(11.13 금)에서는 '우리 회사 탄소 배출량, 처음 재는 법 _ GX 기초 진단'을 다룹니다.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단지공단 수출기업 탄소데이터 조사 보도(아시아경제, 2026.08.19) ·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보도(머니투데이, 2026.02.25) · 산업통상부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보도(정책브리핑, 2026.01 · ZDNet Korea, 2026.05.19) · 산업통상부 EU CBAM 확정기간 안내 보도자료(2026) · 중소벤처기업부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보도(2026.04)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사업 보도(2026.01.18) · 기술보증기금 녹색정책금융 협약 보도(2026.06) · 랩 위드 내부 정리 (2026.11.11)

3. 실전 체크리스트

✔ ③ 실전 체크리스트 _ 우리 회사에 오는 탄소 요구 점검

- ▸ 매출 상위 거래처 다섯 곳을 적고, 각 회사가 협력사에 탄소 자료나 ESG 설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 ▸ 지난 1년간 받은 ESG·탄소 관련 설문과 요청 메일을 한 폴더에 모아 반복해서 묻는 항목을 표로 정리한다
- ▸ EU로 직접 또는 거래처를 거쳐 나가는 품목을 골라 품목번호(HS 코드)가 CBAM 대상이나 확대 논의 대상에 드는지 확인한다
- ▸ 최근 12개월 전기요금 고지서와 연료(가스·경유 등) 구매 내역을 월별로 한 장에 모은다
- ▸ 주거래 은행에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과 기보 탄소가치평가보증 이용 조건을 문의한다
- ▸ 원청이 운영하는 공급망 탄소 상생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는지 협력회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다

4. 이번 주 마감임박 지원사업 (중앙정부 70% · 대전지역 30%)

- **[중앙]** 2026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한계돌파R&D) 신규과제 공모 **(~11.12)** · 한국연구재단
- **[중앙]** 2027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11.13)**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제2차 기술수요조사 시행계획 공고 **(~11.13)**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 **(~11.1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중앙]**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11.16)** · 중소벤처기업부
- **[대전]** 기술교류네트워크 R&D과제 기획지원(2차) 참여기업 모집 **(~11.11)** · 대전테크노파크
-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알테오젠 『2026년 바이오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연구기관 모집 **(~11.16)** ·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 11.11(수)~11.18(수) 마감 공고 가운데 기술사업화·R&D·공급망과 가까운 공고를 중심으로 중앙 5건, 대전 2건을 추렸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공고는 오늘(11.11) 마감입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기부 공고(3차, 11.13)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5차, 11.18)의 관계를 접수처에서 확인한 뒤 안내하기 위해 이번 목록에서 뺐습니다. ※ 출처: 랩 위드 지원사업 브리핑 (2026.11.11 기준).

거래처의 탄소 자료 요청, 어디서부터 답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우리 회사에 오는 요구를 정리하고 지원사업·녹색금융과 연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 '사업화전략 수립' 컨설팅 상담

상담 신청 ☎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 cafe.naver.com/techcomwith

▶ **더 보기:**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Model (cafe.naver.com/techcomwith/245)

▣ 랩 위드 컨설팅 솔루션 _ 사업화 전 단계를 전문가가 함께 설계합니다





랩 위드 AI R&D 전략 분석 플랫폼

"R&D 사업계획서, AI로 구조화"

· 공고·RFP 분석 → 평가항목별 맞춤 전략 도출
· 정부 과제 DB 2,900+건·선행연구 검색
· 평가위원 관점 피드백으로 완성도 점검

IR 컨설팅 솔루션

"기업진단부터 모의 IR까지 4STEP"

· 기업진단 → 투자전략 → IR Deck → 모의 IR
· 피치덱 10장 구조·트랙션·Ask 설계
· 7회차 온라인 관리로 단계별 코칭

기업진단 솔루션

"우리 회사 사업화 준비도 점수화"

· 기업정보·재무·기술개발·정성평가 종합
· 강·약점 종합 진단 리포트 자동 생성
· R&D·투자 준비 우선순위 제시

◆ 랩 위드 채널 _ 지금 바로 연결하세요

랩 위드는 매일 중앙정부·대전지역 12개 기관 지원사업을 수집·분류해 고객사에 전달합니다. 브리핑·인사이트·AI 분석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 _ R&D·사업화 전략 수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 [무료 공개] 랩 위드 지원사업 내비게이터 _ 공고가 뜨기 전에, 준비는 시작됩니다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내비게이터' 메뉴 | 중앙정부와 대전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준비 달력

- 공고는 마감 3~4주 전에 뜨지만, 경쟁력 있는 계획서는 주제 설정·컨소시엄 구성·수요처 확보까지 통상 4개월이 걸립니다.
- 중앙정부와 대전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단위로 묶었습니다(17개 부 포함 36개 부처·청·위원회).
- 접수 마감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D-day 준비 단계와 '지금 할 일', 서류별 통상 소요일(예: 연구소 인정서 21일)을 보여 드립니다.
- 정부지원금을 넣으면 총사업비·기관부담금·현금·현물 부담을 기업 규모별로 바로 계산합니다.
- 공고 포털이 '무엇이 열렸는지'를 알려 준다면, 내비게이터는 '언제부터, 무엇을,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 ※ 지원 규모·자금 비율은 통상 기준이며, 최종 요건은 공고문으로 확인하십시오.

QR로 지원사업 내비게이터 바로 열기

◆ [5기·6기 모집] R&D 실무교육 아카데미 _ 될 때까지 지원하는 실습 교육

2026. 11.30(월)~12.22(화) | 과정별 1일 완결 |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교육장(대전 중구)

- 참가자 본인이 보유한 기술로 그날 R&D 연구계획서·PSST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 과정입니다(R&D 과정은 본인 기술 1건 보유 필수).
- R&D 평가위원이자 전문개인(엔젤)투자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하고 지도합니다.
- 5기 · 11.30(월) R&D 연구계획서 10:00~16:00 30만원 | 12.1(화) PSST 사업계획서 10:00~14:00 25만원
- 6기 · 12.21(월) R&D 연구계획서 10:00~16:00 30만원 | 12.22(화) PSST 사업계획서 10:00~14:00 25만원
- 날짜별 개별 신청 가능 · 각 과정 정원 4명 선착순 마감
- TRACK B · 계획서 진단 클리닉(4시간) _ 15만원 · 상시 접수(1~2인은 평일 중 협의, 3인 이상은 원하는 날짜로 별도 개설)
- 신청: 홈페이지 www.labwith.kr 실무교육 아카데미 페이지의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골라 신청하십시오.
- 문의: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 카카오톡 ID antipoto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조남주 대표이사 · 공학박사 · 전문개인(엔젤)투자자

☎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대전 본사 (34897)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15번길 56, 진호빌딩 301호

홈페이지: www.labwith.kr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techcomwith